

청중 (신명기 28:1-14)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청중이다.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따라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선교사역은 한 50명 정도 목사님이 모였는데 나라수로는 7개 나라에서 왔다. 아마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에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은 진심으로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제 2, 3의 문이 열릴 것으로 믿고 지금은 이스라엘 목사님을 통해서 쿠바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 운동을 지속할 많은 제자, 중직자, 그리고 전도자들이 일어셔야 할 것이다.

톨루카에서는 지금까지 호세아스 목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다른 성도들이 와서 메시지를 들었다. 과테말라 목사님들에게는 처음 메시지 듣는 분들이라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톨루카에는 지금까지 훈련 받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2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다. 조금더 종합적이고 헌신, 전도 쪽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좋은 분들이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메시지 하면서 많이 느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남미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두고 남미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번에 과테말라의 마리오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아침과 저녁을 그 교회에서 계속 준비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헌신을 많이 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번에 렘넬트 두명이 같이 갔는데,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세대 선교사 인턴십에 렘넬트들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부탁드릴 것은 8월 8-12일 사이에 엔세나다에서 목사님들 중심의 컨퍼런스를 열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엔세나다 지역에서 연결된 목사님들, 그리고 로스카보스에서 연결된 목사님들이 주축이 될 것이다. 엔세나다에 후안 암브로시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영어와 스페니쉬에 능통한 분이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중에 멕시코 선교를 하겠다고 해서 엔세나다에서 사역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 사모님에게서 매주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선교사님들도 초청하고 이번에 치아파스에서 사역하는 백인 청년 선교사 한 사람이 있다. 이 분이 이번에 상당히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리카르도 목사님이 메시지 할때는 누가 와서 통역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마리오 전도사가 바쁘면 이 청년 선교사가 백인이지만 스페니쉬를 잘해서 옆에 와서 통역도 해주고 했다. 이 분의 멘토가 멕시코의 소노라 주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 이야기가 이 선교사가 발이 넓다고 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그 선교사님의 일정에 맞춰서 날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8-12일로 결정했다. 미국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1. 청중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아주 하나님이 대단한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 간단하다. 1절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셨다. 2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중하면이라고 하였다. 같은 뜻이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면이라는 말이다. 그리하면 1절에 약속하기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난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3절에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는 네 자녀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고 흥분하는데, 5절에, 너의 광주리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7절에는 대적이 한길로 쳐들어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간다는 것이다. 참 놀랍다. 한 개만 하면 된다. 하나님 하라는대로. 그러면 니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한 개를 안하고 다른 것을 양다리 걸치고 하려는 것이 우리의 병이다. 8절 보면 창고와 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11절에 내가 맹세한 땅에서 니 몸의 소생과 가족의 새끼와 소산을 많게 할 것이며, 12절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그 땅에는 비가 때를 따라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줘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진짜 놀랍다. 13절에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한 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절대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직 나의 명령만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될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많이 있다. 우리 주위에도 지금 있을까? 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해도 여러분 알 것이다. 있다. 지금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 그 분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라.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니가 항상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딱 그것을 늘 이야기 한다. 심각하게 잘 들어보라. 늘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실수해도 역전되어 버린다. 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버렸는데, 실수 했는데도,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말씀 듣고 넘어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다. 멈춰서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느낌에 그렇다. 미국에도 우리를 통해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진짜 시대적인 일이다. 그러면 오늘 약속한 이것에 어느 한 곳에는 들어갈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다. 한 개를 딱 말했다. 다르게 아니다. 안되는 사람은 핑계대며 안된다. 이 한 개를 안해서 그렇다. 14절에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 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니가 이 말씀을 떠나 니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끝을 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보다도 더 앞에 두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보고 원망할 것 없다. 내가 이것을 안하고 있다. 해도 양다리 걸치고 있다. 여기 생명까지 건적은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걸 정도가 되어 버리면 이런 인생 되어버린다. 머리만 되고 아래는 안된다. 놀랍다. 전 세계 민족중에서 너희가 최고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지막에 우상숭배해서 뒤집어져서 그렇지 처음에 어땠는가? 조그만한 나라가 1등이었다. 아무도 못 이겼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수많은 약속을 했고, 놀라운 약속을 구체적으로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하게 내가 하는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키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지켜 행하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구약의 많은 명령과 법도는 제사와 절기 행사들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지킨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안된다. 믿었을 때 싹 다 지킨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써냈다. 그것은 5-10계명 지키면 다 되었다. 구약 성경에 그 조항들을 읽어보면 세밀하게 많은 것을 써냈다. 조항이 많다. 그런데 5-10계명 안에 다 들어 있다. 5-10계명을 딱 지키면 그 모든 조항도 지킬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얼마를 물려주고, 그런데 안 훔치면 얼마를 물려줄 필요도 없다. 마태복음 22:40절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한다.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 두 계명이 구약성경의 요약이라는 뜻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냐니까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니가 남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도적질 안하지. 왜냐면 너 몸처럼 사랑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이런 눈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간단해진다. 실제로 간단하다. 1-4계명, 니가 우상숭배 하면 되겠어?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다. 주일날 지키라고 했다. 안식일. 다른데 돈벌러 가면 되겠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되겠어? 존경하고 그래야지 예스럽게 생각하면 안되지. 그리고 니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마. 니 부모도 1번 이웃이야. 쉽고 간단하다. 못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대로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다. 잊지 말라.

2. 누림

정말 간단하데,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도 있다. 하나님의 명령도 간단하고 청중도 간단하데, 항상 변수가 사단이다. 사단은 청중을 가장 방해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을 지키면 사단은 그 자리에서 박살난다. 그래서 이 청중과 지킴을 위하여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단어가 누림일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에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승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청중이 가능하다. 이것이 누림이다. 이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이 잘 안지켜져서 자꾸 지는 것이다.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영적 승

리가 항상 필요하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누림으로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은 굉장한 누림과 정복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 니가 머리가 되지 꼬리가 절대 안될거야. 놀라운 승리이다. 완전 역전이다. 니가 이 말씀을 니 가슴에 담고 지키면, 언약으로 잡으면, 그래서 내가 누림이 필요하고 방해하는 흑암을 꺾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절대 안 있을 것이다. 정말로 아래 될수 있을까? 나와 내 인생이 위에만 있고 아래는 절대 없다. 가능하겠는가? 이거 우리가 언약이 되어야 하고 발견되어야 하고 눈 열려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머리만 되고 아래는 안되는 것이다. 나라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가 이걸 말리겠는가? 완전 실수 했는데, 역전되어서 축복으로 바뀌어 버려, 이건 완전 놀라운 일이다. 성음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집도 잘되고 농사도 잘되고, 안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가능하냐는 것이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런 사람이 있었냐? 그 때만 말고 지금도 있느냐는 것이다. 꾸어주는 민족은 되도 꾸는 민족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야. 참 놀랍다. 나도 될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 답 내고 평생 이 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팬데믹 기간중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아직도 완전 내것 아니다. 되어갈 것이다. 두 번째 응답이 있다. 제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자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제자라는 단어는 수만번 들었을 것이다. 아직 개념이 서지 않았다. 지나고 보니까. 나는 아는줄 알았다. 우리 메시지 들으면 알면 응답 온다고 한다. 제자라는 단어가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자신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남미 목사님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캠프 기간중에 그대로 훈련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한명 한명이 아니다. 과테말라에는 컨퍼런스를 열려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타운에만 목사 200명 모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 타운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호텔 얻고 할 필요 없다. 출퇴근 하면 된다. 이스라엘 목사님보고 이 분은 페이스 북 팔로워가 3천명이다. 그 쿠바에서 연락이 왔는데 빨리 와줘라. 그래서 누구를 한사람 짝지워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 와서 사역하고 나면 다음에는 300명 목사 모으겠다고 한다. 될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다. 그러나 전에는 이런 단어도 안 들어왔다. 류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알면 응답 온다 그런 메시지 많이 듣는다. 나는 혼자 생각해, 엔세나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국에 차츰차츰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어진다. 오늘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될 수도 있다. 이대로 되어서 버릴수도 있다. 100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거기에 줄을 서야 한다. 내 인생과 내 마음이. 역사 안할 수가 없다. 이걸 안하면서 왜 안주시냐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역사 일어날수가 없다. 중요하고 너무나 엄청난 약속인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러려면 누림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림으로 한길로 온 적군이 일곱길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다시 언약을 잡고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고 모래도 잡고 죽을때까지 계속 잡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다.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날 우리에게도 깊은 기도를 주실 것이다.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도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알게 되고, 237문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237의 빛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러면 나도 오늘 본문의 약속과 똑같은 인생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될수 있느냐는 말 아닌가? 그렇게 된 예가 있냐? 한 사람이라도 예가 있으면 나도 될수 있다. 내가 두달란트, 다섯 달란트 관계없고 나도 될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으로 사는 사람.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당연한 축복인데, 그 근방에 못 갔다면 왜 그런가? 복음을 물렸는데. 알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의 체질이 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간다. 더 깊이 알아간다 이말이다. 당연한 축복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이 말씀을 쓴 모세도 깊은 누림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깊은 누림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을 따라서 시대적인 명령을 따라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명령이 있다. 이 언약을 누림으로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 사도행전 1:8절이다.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이 명령은 다 달랐다.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시대마다 이 언약을 잡은 자는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다. 잘 아는데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의 주인공이 되었다. 다니엘도 포로가 되었지만 그 나라의 복음운동을 했다. 사도바울은 그냥 놔뒀으면 시대적인 죄인일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 선교의 문이 되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엔세나다 집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기 바란다. 될지 안될지 모른다. 이게 미국의 문일지 아닐지 세월 지나봐야 아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데, 맞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겠는가? 근본은 하나님의 소원하고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미국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소원이다. 그것으로 인해 미국 교회가 살아나면 이것보다 큰 일은 없다. 미국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모든 선교 현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현장이 살아나고 참된 복음운동,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시대적인 안디옥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미는 자연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미국에 영향을 받아 2중 3중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놓고도 기도한다. 굉장한 치유가 필요하고 처절한 렘넌트 운동이 필요한 곳이다. 이곳에 선교를 긍정적으로 잘 함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 아마 성공할 것으로 본다. 이유는 우리가 가진 콘텐츠가 성경에 바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같다는 말이다. 이것은 굉장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세상에 교회가 잘 안되고, 저주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교회가 계속 말하고 있으면 세상의 저주가, 사단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면 성도들만 듣는다. 바깥에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전하는 교회가 더 많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면 바깥의 사단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에 말씀 듣고 싶어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바깥에 사단이 죽는다. 니가 이 말씀을 지키면 니 대적이 한길로 쳐들어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거야. 대단하게 밖에 나가서 뭘 해라. 그러면 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니가 지키면. 너의 교회가 이 말씀을 지켜라. 너의 교회는 일등만 하지 이등도 안할거야. 너의 모든 성도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자식들이 축복받고 들에도 성음에도 가족도 복을 받고, 너는 너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교회를 축복할거야. 하나님 약속이다.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말해라. 너는. 그러면 너 할 일이 끝났지, 그 다음은 전부 내 일이야. 이 말씀을 듣고 잡아야 한다. 안되도 잡아라. 계속 하고 세월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 것이다. 이거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굉장한 것 아닌가? 미국 교회에 이것만 바뀌려면 우리가 할 일 다 한 것이다. 왜 미국 교회가 죽냐? 왜 미국 사회가 세상 모든 나라의 사단 역사에 일등이 되어 버렸냐? 땅에 안 좋은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조종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할것인가?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의 교회에서 계속 하라. 인디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들 중독 고 치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거 볼 필요 없다. 거기 있는 목사님들 모아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아직 목사님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 가서 자기 교회에서 10명이고 20명이고 말하게 되어 있다. 계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중독이 아니다. 이 아이들이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영적인 것을 심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왜 그날 저녁 애굽에서 나올수 있었는가? 창세기 3장 21절, 그 약속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다. 왜 사무엘에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는가? 그는 먹먹는 어린양을 재물로 드렸다. 사도바울은 왜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와 언약의 피에 대한 전문가였다. 그래서 역사가 아주 전문적으로 일어났다. 전문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제자가 일어났다. 사도들 중에 아무도 이런 전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사도바울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것만 전해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것이다. 이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 다음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성공시키겠는가? 언약 잡고 누리는 것이다. 영적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세력을 박살내는 것이다. 한길로 쳐들어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도록 언약을 잡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줄 믿는다.